

도계시설 부족으로 유통어려움 많아

(한국육계 납세조합
도계 장임대 및 신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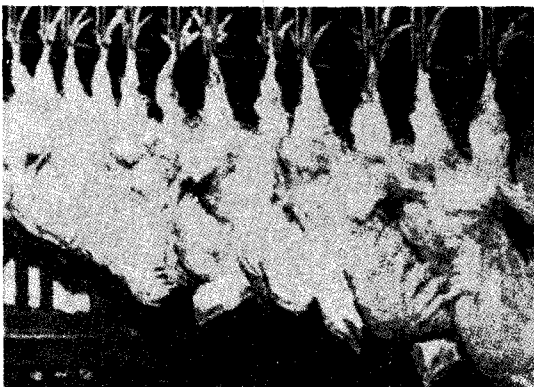
서울시 일원의 도계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계유통의 혼란이 우려된다.

상인들은 스스로 일반도계장 자체건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통수급정책이 수립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자체에 생산자-유통상인-관계당국의 긴밀한 협조로
더 이상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기를 고대하고 있다.

南 斗 熙

(본지 편집국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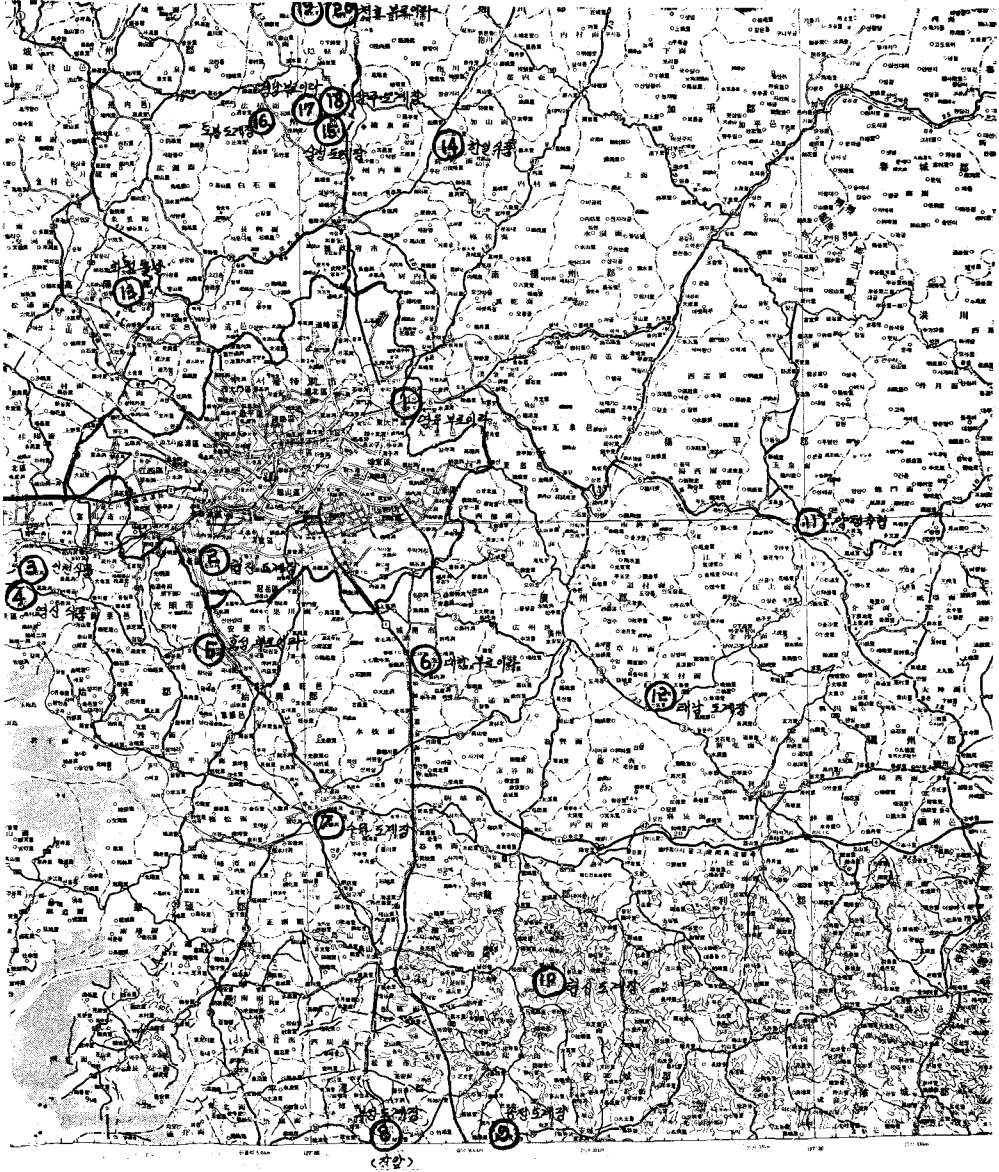
1961년 1월 20일 법률 제1101호로 제정 공
포되어 76년부터 시행되어오다 1977년 12월 31
일 법률 3060호에 의거 개정보완된 축산물가공
처리법(축청 도계법)은 그동안 밀고 당기는 가
운데 서울지역의 간이도계장 설치, 법률상 문
제점 보장, 신규 대형도계장 건립, 소비자 흥
보 등을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생산자,
유통상, 소비자의 협조로 서서히 뿌리를 내리
고 있다.

서울시 닭고기 판매업자 및 간이도계 업자들
로 구성, 160여명의 조합원을 갖고있는 한국육
계납세조합(조합장 권경익)은 육계업의 특수성
을 △동업자 자신들도 천시하는 품목으로 사회
활동에 선구자가 되기를 기피하고 △고래(古來)
로부터 답습하여 온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육계
시장의 유통기능을 대행해 온 관례 △생계유통
을 단속할 때마다 산지에서 물량량체화로 유
통마비, 가격하락 현상 △육계반입 경로를 분
류할 때 계약생산자가 3.1%, 비계약생산자가
96.9%이며 반입시 비계약생산체제에서 도매상
이나 위탁상, 수집상을 거쳐서 무질서한 반입
체제로 연결된다는 견해를 갖고 도계유통이 지
연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1. 도계품 유통시설의
부족(도계장, 판매장) 2. 기존상인이 아닌 외
부인의 유통업무 참여에 대한 기존상인들의 반
발 3. 도계품 판매시 생계판매 보다 수익이 적
을 것이라는 상인들의 그릇된 개념 4. 일관성
없는 행정관서의 단속 및 일반도계장과 간이도
계장 경영자들의 적자운영 5. 축산물가공 처리
법 자체가 소비자의 기호를 전혀 생각치 않고
시행되었다는 소비자들의 반응결과 등으로 들
고 있다.

동 조합에서 지난해 11, 12월에 걸쳐 서울시
도매업자 2백여명에게 청취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일일 계육유통량은 성수기에 생계 12만
수, 도계 6만수로 18만수가 유통되며 비성수
기에는 생계 8만수, 도계 4만수 등 12만수가
유통된다고 보고 있다.

이중 '도계품의 일일 유통현황(비성수기)을
분류하면 조합원 및 시중도매상에서 2만 8천
수분을(70%)취급하였고 간이도계장에서 8천수
분(20%)를,도계장의 직접 판매망을 통해 4천

(그림) 서울시 근교의 일반 도계장 현황 (자료: 한국육계납세조합)



수 (10%)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근교의 일반도계장 실태에 의하면 중심가에서 50km (80분)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18개의 도계장중 4개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 14개 도계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들 도계장의 작업능력이 일일 13만수 정도로 자가판매, 지역 소비, 위탁도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안양, 수원, 성남지역의 도계장은 거의 지역소비물량을 공급하는데, 그리고

있어 서울시내의 물량을 공급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위탁도계의 경우는 판매시간 등에 있어 이른 아침 3~4시간내에 서울시에서 소비될 전량이 도계되어야 하며, 상인이 닭을 구입한 가까운 지역에서 도계를 희망하는데 비해 도계능력의 한계가 있어 시설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도계시설의 문제는 없으나 서울 경기지역의 도계시설 미비로 유통에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1월말로 끝나는 간이도계장

영업허가 취소로 더욱 가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 도매상인들은 포천지역에 여름철 성수기안에 가동할 수 있는 새로운도계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시간당 2,500수~5,000수 도계규모) 위탁도계의 불편을 덜고자 몇명이 어울려 기존도계장을 세를 내서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순조로운 유통에는 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도 도매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벽에 몇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장사를 하게 되기에 큰 문제는 없으나 법운영에 따라 영세상인들이 큰 애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신규도계장 건립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환경보전을 위한 공해방지법, 상공부의 공장배치법 등 제한요소가 많아 실현되기에는 많은 난점이 있다.

그래서 한국육계납세조합은 서울시내 도매상 100군데, 소매점 6~70 군데의 의견을 종합하여 농수산부, 서울시 등 관계요소에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및 간이도계장 허가만으로 따른 유통상의 문제점들을 한국 육계납세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 도계품 유통시설의 절대부족에서 오는 혼란 2. 도계정착이 성숙치 않아 간이도계장이 폐쇄될 경우 생계환원은 물론이려니와 좌절감으로 인한 분산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 간이도계장들이 자립하여 일반도계장 자체건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통수급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낼 예정으로 있다.

동 조합은 앞으로 조합원의 상권을 타업자로부터 보호받고 조세부담의 형평원리에 입각해 근거있는 조세부담을 능동적으로 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생산자들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기만의 육구종족에서 탈피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육계유통을 담당코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간이도계시설을 갖고 있는 유통상인의 경우는 은연중에 철저한 단속으로 문제점이 표면화되기를 바라고 영세상인들은 생업에 위협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범의운용이 이루어질것을 희망하고 있다.

아무쪼록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도계유통이 빠른시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산자, 유통상, 관계당국의 긴밀한 협조로 서로의 업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귀하의 시간·경비·노력을 절약해 드립니다”

생산성향상은 귀하의 사업성패를 좌우합니다.

평농의 부화기, 사료저장조(FRP 및 STEEL)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는 각각의 특성을 최대로 살려 귀하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드릴 것입니다.

1. FRP 판넬의 자동부화기
2. 자동급이 급수시설

평 농 축 기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536-1
전화 : 평택 (1333) 4-7484